『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에 나타난 언어의 시대적 특징 고찰

박용식*

요약

이 글은 학계의 묵은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였던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의 언어가 반영하는 시대적 특징의 한 부분을 고찰한 논문이다. 향가에 나타난 언어 사실에 대한 연구가 종래에는 그 작품의 창작 연대를 참작하여 그 당시의 언어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막연히 추측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반성이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뚜렷한 검토 작업이 없었다. 그러나 근래에 이두 자료는 물론 특히 석독구결 자료에 대한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향가 자료를 이두 자료, 석독구결 자료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현존 향가 자료가 창작 당시의 언어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고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等'과 '尸等隱/尸等焉'의 문법화 정도, '賜'의 한자음 변화, '爲, 白'의 분포 등의 검토를 통해 『삼국유사』 향찰에 반영된 언어의 시대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두 자료에 나타나는 '(乙)等'은 13세기 이전 자료에는 모두 통사적 구성인 [[[-ㄹ]#ᄃᆞ]+-ㄴ]만 나타나며, 문법화되어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어말어미인 '(乙)等'은 13세기 이후의 자료에만 나타난다. 반면, 7~9세기에는 '(乙)等'의 문법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 경상대학교 강사

에 창작된 것을 수록한 『삼국유사』 향찰의 '(尸)等'은 모두 문법화가 완성된 것만 나타났다. 그리고 존경의 선어말어미 '賜[시]'가 1031년에 간행된 『약목정두사석탑조성형지기』까지만 나타나며, 그 후대 자료에는 '敎'가 나타나는데, 『삼국유사』 소재 향찰에는 존경의 선어말 어미로 '賜'뿐만 아니라 '敎'도 나타난다. 이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는 창작 당시의 언어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자어에 통합하여 접미사 구실을 하는 '爲'는 8세기 이후의 이두 자료나 『균여전』에 수록된 향가에는 나타나지만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선어말어미 구실을 하는 '白'이 역시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에 나타나지 않는 점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는 9세기 이전에 창작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문법형태소는 후대에 창작된 『균여전』에 수록된 향가가 오히려 앞선 시대 언어를 반영한 반면 어휘면에서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가 창작 당시의 언어를 의고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이두, 향찰, 향가, 석독구결, 삼국유사, 균여전, 문법화, 한자음

1. 서론

고대국어 연구에서 이두나 구결, 향찰 자료 중 어느 하나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문법 형태들의 선후 문제를 따질 때에는, 향찰에 나타나는 문법 형태의 연대는 어느 시기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향가에 반영된 언어의 시대적 특징을 찾는 일은 국어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학계의 오래된 고민거리였다.

이기문(1972:61)은 '『三國遺事』의 編者가 『三代目』에서 직접 옮겨 실었는지, 아니면 高麗 時代에 와서 다소 變改된 것을 실었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간혹 高麗 時代의 變改의 흔적이 아닌가 의심되는 것이 나타난다.'고 한 바 있으며, 「처용가」에 대한 논의에서 '新羅 時代에 와서 그 서울을 東京이라 했을는지도 의심스럽다. 이것을 高麗時代에 와서 變改된 것이 아닌가. 이 變改된 것을 三國遺事에 싣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자아낸다(이기문 1972:81)'고 하였다.

또한 남풍현(1998/2000:435)은 '향가는 그 해독에 앞서 철저한 原典批判을 거쳐야 할 자료인데 현재 그러한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삼국유사의 향가를 고대 국어의 자료로 이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며, '향가에 나타나는 문법형태는 그것이 곧 고대 국어의 형태라는 보장이 없다. 이것이 고대 국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도 이두를 통한 이러한 작업은 중요하다.(남풍현 1998/2000:455)'고 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국어사 연구자들이 가졌던 오랜 고민의 해결을 위한 작은 시도이다.

향찰에 나타나는 형태의 시대적 특징에 대한 연구는 향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두와 석독구결에 대한 연구 결과의 성과가 바탕이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던 이유는 8~13세기의 언어적 상황에 대한 입체적인 연구 성과물이 부족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근래에 석독구결을 중심으로 한 12~14세기의 문법 형태에 대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면서, 향찰이나 이두 자료에 대한 기존 연구를 재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은 이두의 역사적 연구 성과는 물론 석독구결에 대한 연구 성과에 많은 힘을 입었다.

이두 연구는 이승재(1992), 서종학(1995), 배대온(2002) 등에서 역사적인 정리가 이루어졌고, 석독구결은 심재기·이승재(1998), 정재영(1998), 남성우·정재영(1998), 남풍현(1998) 등에서 『화엄경』, 『금광명

경』, 『구역인왕경』, 『유가사지론』 등의 석독구결의 표기법을 정리하고 한글로 전사함으로써 석독구결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여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향찰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초 小倉進平의 연구를 시작으로 양주동(1965) 이후 향가 모두를 해독한 연구서들이 많이 나왔다. 이 연구는 주로 양주동(1965), 김완진(1980), 유창균(19 94)를 참고하였다.

이두, 구결, 향찰, 어휘자료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1998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간행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에서 정리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이승재(1998:41~75), 박성종(1998:77~120), 박진호(1998:121~205), 남풍현(1998:207~241) 등에서, 고대 국어의 '형태, 어휘, 문법, 자료'에 관해 개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7년까지의 고대 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단행본과 논문 목록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두, 구결, 향찰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고대 국어 문법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이용(2000), 황선엽(2002)이 대표적이다. 여기에서는 이두, 구결, 향찰 모두를 검토하여 고대 국어의 어말어미의 형성 과정과 분포를 정리하였는데, 이는 향가 해독에 대한 많은 연구와 이두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는 물론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논의된 석독구결에 대한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이들 두 연구는 고대 국어 문법이 반영된 현전하는 모든 자료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황선엽(2002:34~35)에서 『균여전』에 수록된 향가에 나타나는 처격조사 '中'을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에 나타나는 '良中'보다 후대의 형태로 규정하여 『균여전』의 '中'을 '良中'에서 '良'이 생략된 것으로 파악한 것은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처격조사 '中'과 '良中'의 관계는 이두자료에는 5세기부터 10세기까지 '中'으로 나타나다가 11세기부터 '良中'이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良中'이 '中'의 후대 형태로 보기

어렵다. 또한 '良'이 생략되는 경우가, 이두와 향찰에서 '良'이 생략되는 일반적인 환경과 다른 점도 문제가 된다.[1] 이 경우 『삼국유사』의 '良中'은 기록할 당시인 13세기에 널리 쓰이는 형태를 적은 것이라 할 수 있고, 『균여전』의 '中'은 『균여전』의 집필 시기인 11세기에 쓰인 의고적 표기로 볼 수 있다.

처격조사 '中'과 '良中'의 경우만으로는 『삼국유사』의 향가와 『균여전』의 향가에 나타나는 문법 형태들의 선후 관계를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향찰에 나타나는 '中'과 '良中'의 이러한 관계는 『삼국유사』의 향가가 『균여전』의 향가보다 오히려 후대의 언어적 현상이 반영되기도 했다는 추정을 하게 한다. 아래 3장에서는 '等'의 문법화 정도를 고찰함으로써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는 13세기의 언어적 상황이 반영되기도 했다는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이다.

2. 향가의 창작과 기록

현전하는 향가는 일반적으로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 14수와 『균여전』에 수록된 11수 그리고 고려 예종(睿宗)이 지은 '도이장가' 등이

---

1) 이두자료에서 연결어미 '-良[아/어]'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는 주로 '-良[아/어]'가 어절경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이다. 『대명률직해』에서 아래 (ㄱ′, ㄴ′)의 '是良置, 爲良音可'에서, '良'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是置, 爲音可'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아주 드물다.

(ㄱ) 必于 實事是置 杖一百齊 <대명률직해22 : 8ㄴ>

(ㄱ′) 必于 親屬是良置 謀叛 以上 罪去等 不用此律爲乎 事 <대명률직해1 : 37ㄴ/38ㄱ>

(ㄴ) 凡 各 納者亦 依例 納官 貢物 及 官司良中 納上爲音可 雜物色 等乙 隱置斜用爲旀 <대명률직해7 : 4ㄱ>

(ㄴ′) 於法良中 互相 隱匿爲良音可 人亦 自告爲旀 互相 自告爲在 人乙良 犯罪人亦 自告例以 論爲 免罪齊 <대명률직해1 : 27ㄱ>

다. 이 향가들의 창작 연대와 편찬 연대를 보면,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는 신라 때 불리어지던 노래를 충렬왕 7년(1281년) 경, 고려 후기의 승려인 일연(一然)이 정리한 것이고, 『균여전』의 향가는 문종 29년(1075년)에 혁련정(赫連挺)이 찬술한 고려 승려 균여의 전기인 『대화엄수좌원통양중대사균여전(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에 전하던 것을 13세기 중엽의 승려인 천기(天其)가 간행한 것이다. 그리고 '도이장가'는 1120년(예종 15)에 예종이 지은 것으로 신숭겸(申崇謙)의 행적을 기록한 문헌인 『평산신씨장절공유사(平山申氏壯節公遺事)』에 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연구의 주된 자료인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의 작가와 창작 연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작 품 명	작 자	연 대
서동요(薯童謠)	서동(薯童)	신라 진평왕대 (579~632)
혜성가(彗星歌)	융천사(融天師)	신라 진평왕대 (579~632)
풍요(風謠)	민중의 공동작	신라 선덕왕대 (632~647)
원왕생가(願往生歌)	광덕(廣德) 또는 그 아내	신라 문무왕대 (661~681)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득오(得烏)	신라 효소왕대 (692~702)
헌화가(獻花歌)	견우노인(牽牛老人)	신라 성덕왕대 (702~737)
원가(怨歌)	신충(信忠)	신라 효성왕 1년 (737)
도솔가(兜率歌)	월명사(月明師)	신라 경덕왕 9년 (760)
제망매가(祭亡妹歌)	월명사(月明師)	신라 경덕왕대 (743~765)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	충담사(忠談師)	신라 경덕왕대 (743~765)
안민가(安民歌)	충담사(忠談師)	신라 경덕왕대 (743~765)
도천수관음가(禱千手觀音歌)	희명(希明)	신라 경덕왕대 (743~765)
우적가(遇賊歌)	영재(永才)	신라 원성왕대 (785~798)
처용가(處容歌)	처용(處容)	신라 헌강왕 5년 (879)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의 창작 연대와 작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의 창작 연대는 약

6세기부터 9세기에 걸쳐 있다. 그러나 13세기말에 『삼국유사』가 저술되었기 때문에 이들 향가가 반영하고 있는 언어의 연대를 신라 시대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록할 당시의 언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아직 뚜렷한 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단지 『삼국유사』 '신라본기'에 진성여왕 2년(888년)에 각간(角干) 위홍(魏弘)과 대구화상(大矩和尙)이 왕명에 따라 향가를 수집하여 『삼대목』을 엮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적어도 9세기에는 향가의 표기법인 향찰이 정립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들의 창작 연대 중 가장 이른 것은 「서동요」로 6세기말이나 7세기 초기이고, 가장 후대의 것인 「처용가」는 8세기 후기이므로, 이 향가들 간의 차이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승재(1997:240)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통일 이전의 4수 즉, 「서동요」, 「혜성가」, 「풍요」, 「원왕생가」와 통일 이후의 10수인 나머지 향가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즉, 본격적인 문법형태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 7세기 초기 이두자료의 표기 방식과 다양한 문법형태가 표기에 나타나는 8세기 후기 이두 자료의 표기 방식 차이에 대응하는 차이점을 「서동요」와 「처용가」에서 찾기 어렵다. 단지 이두 자료에는 10세기 이후에야 나타나는 조사 '乙[을]'과 어말어미 '良[아/어]'의 표기가 7세기 초기에 창작된 「서동요」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처용가」가 창작된 8세기 이후에 문자로 옮겼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는 창작 연대에 따른 시대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간행에 관한 기록이 없는 국어사 자료는 일반적으로 해당 자료에 나타나는 어휘와 표기법, 혹은 문법 형태의 분포나 서지사항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자료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향가는 현전하는 자료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할 만한 다른 자료 또한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가 반영하고 있는 언어의 역사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살핀다.

①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에 나타나는 형태의 문법화 정도
② 한자음의 변화와 관련된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의 표기 양상
③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의 어휘 양상

3. '等〔ᄃᆞᆫ〕'과 '尸等隱/尸等焉〔ᄅᆞᆫ〕의 문법화 정도

문법화는 통사적 구성의 구성체가 문법 형태로 변하는 것으로, 문법화의 진행 방향은 문법화의 정도가 덜 된 쪽에서 많이 된 쪽으로 바뀐다. 그래서 같은 형태의 구성체가 문법화된 상태로 나타나는 자료는, 문법화되지 않은 채로 나타나는 자료보다 후대 자료로 볼 수 있다. 이 두 자료는 절대 연대를 알 수 있으므로 이두 자료와 향가에 반영된 구성체의 문법화 정도를 비교하면 향찰의 연대를 가늠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와 『균여전』에 수록된 향가에는 의존명사 'ᄃᆞ'와 관련된 형태로 아래와 같이 '等[ᄃᆞᆫ]'과 '尸等隱/尸等焉[ᄅᆞᆫ]이 나타난다. 아래 (1ㄱ, 2ㄱ, 2ㄴ)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이고, (1ㄴ, 2ㄷ, 2ㄹ)은 『균여전』에 수록된 향가이다.

(1) ㄱ. 吾肹 不喩 慙肹伊賜等 花肹 折叱可 獻乎理音如 <獻花歌>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ㄴ. 伊羅 擬可 行等 嫉妬叱 心音 至刀來去 <隨喜功德歌> (=이리 비겨 가면 질투의 마음이 이르러 올까.)

(2) ㄱ. 君如 臣多支 民隱如 爲內尸等焉 國惡 太平 恨音叱如 <安民歌>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을 지속하느니라.)
ㄴ. 吾良遺 知支賜尸等隱 放冬矣 用屋尸 慈悲也 根古 <禱千手

觀音歌> (=나라고 알아주실진대 어디에 쓸 자비라고 큰고)

ㄷ. 生界盡尸等隱 吾衣 願 盡尸 日置 仁伊而也 <總結無盡歌> (= 생계 다한다면 내 願 다할 날도 있으리마는)

ㄹ. 衆生 安爲飛等 佛體頓叱喜賜以留也 <恒順衆生歌> (=중생 편안하면 부처 바로 기뻐하시리로다.)

위 (1ㄱ, 1ㄴ)에서 '等'은 후행절의 술어인 '獻-, 至-'의 목적어나 주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1)의 '等'은 현대국어의 '-면'에 해당하는 연결 어미로 보아야 한다. (2)의 '等'도 역시 후행 술어의 주어나 목적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尸等隱/尸等焉' 등은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로 볼 수 있다.[2] 단지 (2ㄹ)의 '等'만이 후행 술어인 '喜-'의 목적어로도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향찰의 창작시기로 보면 (1, 2)의 자료보다 후대의 것이라 할 수 있는 8세기와 11세기의 이두 자료에 나타나는 '等'의 양상은 (1, 2)의 '等, 尸等隱/尸等焉'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3) ㄱ. 一切 皆 三惡道業 滅尒 自 毗盧遮那是等 覺 去世爲尒 誓內之 <永泰二年銘石盒 766[3]> (=일절 모든 삼악도의 업이 멸하여서 스스로 비로자나인 것으로 깨달아 세상을 떠나도록 다짐하다.)

ㄴ. 同生兄 副戶長 稟柔亦 公山新房 依止 修善僧 覺由 本貫 壽城郡乙 繼願 成畢爲等 勸善爲 食佰貳石幷以 准受令是遣 在如中 <淨兜寺石塔造成形止記 1031> (=친형인 부호장 품유가 공산신방에 의지하는 수선승 각유(본관 수성군)에게 원

2) 황선엽(2002:84)이나, 이용(2000:98)에서도 향가의 '尸等隱/尸等焉(-ㄹ둔)'은 '[[[-ㄹ]#ᄃᆞ]+은]'의 통사적 구성이 단어 및 형태소 경계가 소멸하면서 재구조화한 통합형 어미로 보고 있다.

3) 자료 이름 뒤의 숫자는 해당 자료의 기록 연대를 나타낸다.

을 계승하여 성필할 것을 권선하여 곡식 102섬을 아울러 모두 함께 정확히 받도록 놓고 있던 중)

위 (3ㄱ, 3ㄴ)의 '是等, 爲等'은 '等'이 '是, 爲'에 직접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等'이 형식명사 구실을 하는 점과 이두에서 동명사어미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是(隱, 尸) 等, *爲(隱, 尸) 等'의 구성에서 '隱'이나 '尸'등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3)의 '等'은 (2)의 '尸等隱/尸等焉'에 대응하는 구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3ㄱ, 3ㄴ)의 '毗盧遮那是等, 成畢爲等'은 후행 술어인 '覺-, 勸善爲-'의 목적어 구실을 한다. 즉, (3)의 '等'은 (1, 2)의 '等'과 같이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로 보기 어렵다.[4)]

아래 9세기의 이두 자료에 나타나는 (4)의 '內等者'도 위 (2)의 '尸等隱/尸等焉'에 대응하는 구성이다.

(4) ㄱ. 初 此 願 起在 淸嵩法師 光廉和上 願**爲內等者** 種種施賜 人乃 見聞隋喜爲賜 人乃 皆無上菩堤 成內飛也 <新羅皷興寺鐘記 856> (=처음 이 원을 일으킨 청숭법사와 광염화상이 원하는 것은 종종 베프신 사람이나 견문수희하신 사람이나 모두 무상보리를 이루는 것이다.)

위 (4ㄱ)의 '爲內等者'는 이두 자료에서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동명

4) (3ㄴ)의 '爲等'은 남풍현(2000:505)은 '等'을 의존명사 'ᄃᆞ'에 대격조사 'ㄹ'이 연결된 구성으로 보고 있지만, 서종학(1995:150)은 '願을 이어 成畢하도록 권석하다'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爲等'은 '하기를 하도록'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즉 '等'을 어미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어미 구실을 하는 '等'은 (1, 2)에서 본 바와 같이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반해, (3ㄴ)의 '等'은 '조건'의 뜻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3ㄴ)의 '等'은 형식명사로 규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어미를 고려하면 '爲在隱 等者' 구성에서 '隱'의 표기가 반영되지 않은 구성체로 볼 수 있다.[5] 여기서 '等者'는 '조건'의 뜻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미가 아닌 통사적 구성인 '원ᄒᆞ늘 ᄃᆞᆫ'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아래 13세기와 14세기의 이두 자료에 나타나는 '等'은 형식명사가 아닌 어미로 볼 수 있다.

(5) ㄱ. 各 後所生 幷以 子孫傳持 使用爲良於 爲 出納成給爲臥乎 事 **是等** 右事須貼 <柳璥錄卷 1262> (각 후소생 아울러 자손전지(하여) 사용하게 하여 출납 성급하는 일이거든(일인 것은) 위의 일로 공문을 보낸다.)

ㄴ. 啓受使內乎 所 有 事**是乙等** 聖住寺 持性 照禪師 中延 所志內乙 仍于 判付是乎 狀內爲乎矣 <監務官貼文 1378> (=계수한 바 있는 일이거든(일인 것은) 성주사 주지인 성조선사 중연의 소지내를 말미암아 판부인 (것을) 상내하오되)

위 (5ㄱ, 5ㄴ)의 '(是)等, (是)乙等'은 (2)의 '尸等隱'과 같은 구성이다. (5ㄱ)의 '是等'은 (5ㄴ)의 '是乙等'을 고려하면 동명사어미 '-ㄹ'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다. (5)의 '等'은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等'을 형식명사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조건'으로 해석해도 자연스럽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5ㄴ)의 '乙等'은 통사적인 구성의 [[[-ㄹ]#ᄃᆞ]+-ㄴ]과 문법화된 '-ㄹᄃᆞᆫ'의 중간 단계의 것으로 볼 수 있다.

13세기와 14세기 이두 자료의 '乙等'의 위와 같은 양상은 석독구결 자료의 양상과 유사하다. 향가의 '尸等隱'과 이두의 '乙等'은 석독구결

5) 남풍현(2000:403)은 '爲內等者'를 '爲'는 'ᄒᆞ-', '等'은 의존명사 'ᄃᆞ', '者'는 주제화첨사 '-(으)ㄴ'로 분석하였다.

의 ‘尸入ㄱ’에 대응되는데 통사적 구성인 ‘[[[尸]#入]+ㄱ]으로 볼 수 있는 예와 어미로 볼 수 있는 예가 같이 나타난다.6)

(6) ㄱ. 空法ㅅ 四大法ㅅ 心法ㅅ 色法ㅅ 如丨ソㄱリケ 相續假法ㄱ 一 非矢ㅎ 異 非矢ㅎソナ丨 一リ丨ソロ<u>尸入ㄱ</u> 亦ソㄱ 續ソ令 不矢ケ 異リ丨ソロ尸入ㄱ 亦ソㄱ 續ソ令 不矢ㄱ入⺍ㆍ <舊仁14:6~8 13세기 후기> (=공법과 사대법과 심법과 색법과 같은 것이며 상속가법은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하나이다 하는 것은 또한 이어질 것이 아니며 다르다 하는 것은 또한 이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ㄴ. 陁羅尼呪乙 誦持ソ白ナ<u>尸入ㄱ</u> 得3ホ 一切 怖畏リㄱ 一切 惡獸亠 一切 惡鬼亠 人非人 等ソㄱ 怨賊亠 災橫亠 諸惱亠ノ尸乙 度脫ソ3 五障乙 解脫ソケ 二地乙 念ノ尸入乙 忘尸 不冬ソケソナㅎ七丨 <金光9:16~18 13세기 중기> (이 다라니주를 외워 가지고 있으면 능히 일체 두려운 것인 일체 악수와 일체 악귀와 인비인과 같은 원적과 재난과 모든 번뇌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 5장을 해탈하며 2지를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위 (6ㄱ)의 ‘尸入ㄱ’은 ‘하는 것은’으로 해석되므로 ‘入’은 형식명사이다. 반면, (6ㄴ)의 ‘尸入ㄱ’은 ‘-으면’으로 해석되므로 ‘入ㄱ’은 ‘조건’의 뜻을 가진 어미로 보아야 자연스럽다. 위 (6)의 ‘尸入ㄱ’의 문법화 정도는 (5ㄴ)의 ‘乙等’과 다르지 않다. 즉 8세기나 11세기에는 ‘-ㄹ둔’이 문법화되지 않았으며, 13·14세기에는 ‘[[[-ㄹ]#ㄷ]+-ㄴ] > -ㄹ둔’으로의 문법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5세기의 언해 자료에는 ‘-ㄹ 둔’ 구성, 즉 동명사어미 ‘-ㄹ’과 통합된 명사구 보문 구성이 나타나

6)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尸入ㄱ’의 용례와 해석은 이용(2000:104~105)를 참조하였음.

지 않으므로(정재영 1996:195), '-ㄹ든'의 문법화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13·14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5)와, (6ㄱ)의 문법화가 완성되지 않은 '乙等, ᄇᆞᆺᄀᆡ' 구성을 고려할 때, '조건'의 뜻을 가진 어미로 쓰이는 (2ㄱ, 2ㄴ)의 '尸等隱/尸等焉'은 『삼국유사』에 기록될 13세기말 이전에는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에 나타나는 '尸等隱/尸等焉'은 8세기 이전의 신라 언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3세기말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4. '賜'의 한자음 변화와 관련된 표기 양상

이두 자료에서 존경의 선어말어미 '賜[시]'는 1031년에 간행된 『약목정두사석탑조성형지기』까지만 나타나고, 그 이후의 자료에는 '賜'가 나타나지 않고 (7ㄷ)과 같이 '敎(是)'가 '賜'를 대신한다.

(7) ㄱ. 成內 願旨者 皇龍寺 緣起法師 爲內**賜** 第一 思賜父願爲內弥 <大方廣佛華嚴經寫經造成記 755> (=이룬 원지는 황룡사의 연기법사가 삼으시어(삼으셨으니), 첫째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의 원을 위하여 삼았으며)

ㄴ. 貞甫長老 陪**白**賜乎 舍利 一七口乙 京山府□ 處藏寺主 彦承長老亦 今月一日 陪到爲賜乎 事亦 在等以 <淨兜寺石塔造成形止記 1031> (=정보장노가 모신 사리 17口를 경산부□ 처 장사주 언승장노가 금월 1일 배도하신 일이 있는 것으로)

ㄷ. 功業重大 帶礪難忘**敎** 事是良尒 右員將等矣 功業亦 職次暢情分以 酬答敎 事 不喩去有 等以 <柳璥錄卷 1262> (=공업중대 대려난망하신 일인 만큼(일이어서) 우원장등의 공업이

직차창정뿐으로 수답하신 일이 아니 있는 것으로)

(8) ㄱ. 君隱父也 民隱愛賜尸 母史也 <安民歌> (=임금은 아비요 신하는 사랑하시는 어미요)

ㄴ. 吾良遺 知支賜尸等隱 放冬矣 用屋尸 慈悲也 根古 <禱千手觀音歌> (=나라고 알아 주신진대 어디에 쓸 자비라고 큰고)

ㄷ. 執音乎 手 母牛 放敎遺 吾肹 不喩 慙肹伊賜等 <獻花歌> (=잡고 있는 손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위 (7)의 '賜'는 이두 자료에 나타나는 것으로, (7ㄱ)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고, (7ㄴ)은 '賜'가 나타나는 가장 후대의 자료이다. 그리고 (8)의 '賜'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의 것이다. 이두 자료에는 12세기까지만 나타난다는 사실과, 고려시대의 후기 구결 자료에서 'ㅎ(「賜」) > ㅅ(「示」)'의 교체가 일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13세기말 이전의 언어적 사실을 반영한 표기라 할 수 있다.

(8ㄷ)의 '敎'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같은 구실을 하는 '賜'가 나타남을 고려해 볼 때, 향찰 표기의 불규칙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표기의 불규칙성은 우연한 것이라기보다는 의고적 표기와 13세기 당시 표기의 선택 과정에서 생겨난 혼동의 한 양상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8ㄷ)의 '敎'를 13세기말부터 이두에서 선어말어미로 쓰이기 시작한 '敎'에 영향을 받은 표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석독구결 자료인 『화엄경소』와 『화엄경』 구결에는 'ㅎ[시]'로써 존경법의 '-시-'로 표기하였으나, 『금광명경』, 『구역인왕경』, 『유가사지론』 등의 구결 자료에서는 'ㅅ[시]'로 '-시-'를 표기한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권인한(1997:307), 이승재(1998:56) 등은 '賜'의 한자음이 12세기 중엽에 '시 > ᄉᆞ'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7] (8

7) 권인한(1997:309)은 13세기 중엽에 이미 「賜」의 음이 'ᄉᆞ'로 굳어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로, <향약구급방>에서 '郁李'에 대한 향명이 '山叱伊賜羅次(뫼이ᄉᆞ랒)'에서 '이ᄉᆞ랒'의 'ᄉᆞ'를 「賜」로 표기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ㄷ)의 '敎'도 '賜'의 한자음 변화에 따른 표기로 볼 수 있다.

5. '爲, 白'의 분포와 용법

지금까지는 문법 형태의 변화와 그 표기 양상을 중심으로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의 언어적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13세기 이전보다는 13세기 당시의 언어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삼국유사』 소재 향가에 나타나는 어휘적 양상은 13세기 이전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접미사 구실을 하는 '爲'가 이두 자료에는 8세기부터 나타나지만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균여전』에 수록된 향가에는 나타난다.

(9) ㄱ. 三歸依尒 三 反 頂禮爲內 <大方廣佛華嚴經寫經造成記 755> (=삼귀의씩 세 번 頂禮하고)
ㄴ. 過去爲飛賜 豆溫哀郎 願爲 <永泰二年銘石盒 766> (=돌아가신 두온애랑이 원하여)

(10) ㄱ. 功德叱 身乙 對爲白惡只 <稱讚如來歌> (=공덕의 身을 對하여)
ㄴ. 九世 盡良 禮爲白齊 <禮敬諸佛歌> (=구세 내내 절하옵저.)
ㄷ. 禮爲白孫 佛體刀 <普皆廻向歌> (=절하옵는 부처도)
ㄹ. 佛佛 周物叱 供爲白制 <廣修供養歌> (=불불 온갖 공하옵저.)
ㅁ. 佛影 不冬 應爲賜下呂 <請佛往世歌> (=불영 아니 응하시리.)
ㅂ. 衆生 安爲飛等 <恒順衆生歌> (=중생 편안하면)
ㅅ. 懺爲如乎 仁惡寸業置 <普皆廻向歌> (=참회하던 악도 업도)
ㅇ. 丘物叱丘物叱爲乙 吾置 同生 同死 <恒順衆生歌> (=구물구물하거늘 나도 동생동사.)

위 (9)는 8세기의 이두 자료에서 접미사 '爲'가 나타나고 있는 용례이고, (9)는 『균여전』에 수록된 향가에 나타나는 접미사 '爲'이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에서 접미사 '爲'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爲'가 한자어 어간에 통합한다는 것과 관계있다. 즉, 훈차자인 고유어 술어에는 '爲'가 잘 통합하지 않는다.

국어사 자료는 일반적으로 후대의 자료일수록 한자어의 비율이 늘어난다. 박성종(1998:110)에 의하면,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이다. 이는 고려가요에는 한자어가 14%(박영섭 1995:18), 『균여전』에 수록된 향가에는 30% 정도의 비율이 나타난다는 사실(심재기 1982:116)과 비교해 보면,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에 접미사 '爲'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이와 관련지을 수 있다. 즉, 8세기 이후의 차자표기 자료뿐만 아니라 『균여전』에 수록된 향가에도 접미사 '爲'가 널리 쓰였음에도,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의 창작 연대가 8세기나 그 이전 시기인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11세기부터 겸양법 선어말어미 구실을 하는 '白'의 표기도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에서는 다소 이전 시기의 어휘적 특성을 보인다.

(11) ㄱ. 石塔五層乙 成是白乎 願 表爲遣 成是 不得爲乎 天禧 二年 歲次 壬戌 五月 初七日 身病以 遷世爲去在乙 <淨兜寺石塔造成形止記 1031> (=石塔五層을 이루시올 것을 願表하고 이루지 못한 天禧 2年 歲次 壬戌 5月 初7日 身病으로 遷世하였거늘)

ㄱ′ 石乙良 第二年春節已只 了兮齊遣 成是 不得爲 犯由 白去乎 等用良 <淨兜寺石塔造成形止記 1031> (=돌일랑 제2연춘절까지 마치도록 한다 하고 이루지 못하여 범유 사뢰온 것으로써)

ㄴ. 再造王室復整三韓令是白乎 功業重大 帶礪難忘敎 事是良尒 <柳璥錄卷 1262>(재조왕실 복정삼한 시키옵는 공업중대 대려난망하신 일이어서)

(12) ㄱ. 禮爲白孫 佛體刀 <普皆廻向歌> (=절하옵는 부처도)
ㄴ. 世呂中 止以友白乎等耶 <請佛往世歌> (=세상에 머무르시게 하도다.)
ㄷ. 慕呂白乎隱 佛體前衣 <禮敬諸佛歌> (=그리온 부처 앞에)
ㄷ'. 南无佛也 白孫 舌良衣 <稱讚如來歌> (=나무불이여 사뢰는 혀에)
ㄹ. 主乙 完乎白乎 心聞 <悼二將歌> (=님을 온전케 하온 마음은)

(13) ㄱ. 祈以支 白屋尸 置內乎多 <禱千手觀音歌> (=기구의 말씀 두노라.)
ㄴ. 惱叱古音 多可支白遣賜立 <願往生歌> (=보고의 말씀 빠짐없이 사뢰소서.)
ㄷ. 彗星也 白反也 人是 有叱如 <彗星歌> (= 혜성이여 하고 사뢴 사람이 있다.)

위 (11ㄱ, 11ㄴ)은 '白'이 11세기의 이두 자료에서 선어말어미 구실을 하는 것과 용언의 어간 구실을 하는 용례이다. (12ㄱ~12ㄷ), (12ㄹ)은 각각 『균여전』에 수록된 향가와 '도이장가'의 용례로 선어말어미 구실을 한다. 한편 (13)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에 나타나는 '白'으로 명사나 용언의 어간 구실을 한다. 이렇게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에 선어말어미 구실을 하는 '白'의 용례가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균여전』에 수록된 향가나 '도이장가'에 나타나는 '白'의 용례와 비교해 볼 때, 13세기 이전의 언어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자료의 제약으로 인한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앞에서 논의했던 접미사 '爲'의 분포를 고려하면, 6~9세기에 창작된 당시의 언어적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等'과 '尸等隱/尸等焉'의 문법화 정도와 '賜'의 한자음 변

화, '爲, 白'의 분포 등의 검토를 통해 『삼국유사』 향찰에 반영된 언어의 시대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두 자료에 나타나는 '(乙)等'은 13세기 이전 자료에는 모두 통사적 구성인 [[[-ㄹ]#ᄃᆞ]+-ㄴ]만 나타나며, 문법화되어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어말어미인 '(乙)等'은 13세기 이후의 자료에만 나타난다. 13세기의 석독구결 자료에도 'ᄆᆞᄉᆞᄀᆞ'은 통사적 구성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어말어미로 볼 수 있는 구성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13세기는 '-ㄹᄃᆞᆫ'의 문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임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7~9세기에는 '(乙)等'의 문법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창작된 것을 수록한 『삼국유사』 향찰의 '(尸)等'은 모두 문법화가 완성된 것만 나타났다. 그리고 존경의 선어말어미 '賜[시]'가 1031년에 간행된 『약목정두사석탑조성형지기』까지만 나타나는데, 『삼국유사』 소재 향찰에는 존경의 선어말 어미로 '賜'뿐만 아니라 '敎'도 나타난다. 이는 '문법화된 (乙)等'과 마찬가지로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는 기록할 당시인 13세기의 언어적 상황이 반영되기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한자어에 통합하여 접미사 구실을 하는 '爲'는 8세기 이후의 이두 자료나 『균여전』에 수록된 향가에는 나타나지만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선어말어미 구실을 하는 '白'이 역시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에 나타나지 않는 점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는 9세기 이전에 창작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는, 문법 형태의 경우 13세기 말에 기록될 당시의 언어적 상황이 반영되기도 한 반면, 어휘 형태는 13세기의 차자표기법의 특징을 고려하면 다소 그 이전의 언어적 특징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향가가 구전되어 오다 문자로 정착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찰의 이러한 양상은 자연히 조선시대에 기록된 고려 가요의 양상으로 의문점이 이어진

다. 이에 대한 논의는 후고로 미룬다.

참고 문헌

고영근(1998), 「석독구결의 국어사적 가치」, 『구결연구』 3, 구결학회, 1~28쪽.
고정의(1992), 「대명률직해의 이두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정의(2004), 「구결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5~46쪽.
권인한(1997), 「한자음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283~344쪽.
김동소(1998),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김영욱(2003), 「좌등본 화엄문의요결의 국어학적 연구」,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47-77쪽.
김영욱(2004), 「판비량론의 국어학적 연구」,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81~97쪽.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완진(2000),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출판부.
남권희(1997), 「차자 표기 자료의 서지」,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147-194쪽.
남성우·정재영(1998), 「구역인왕경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구결학회, 195-251쪽.
남풍현(1998), 「『유가사지론』(권20)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구결학회, 253-336쪽.
남풍현(1998), 「고대국어의 문법형태」, 『제3차환태평양한국학국제회의 한국학논총』, 제3차 환태평양 한국학 국제회의 조직위원회편.['남풍현(2000) 『이두연구(태학사)』'에 다시 수록].
남풍현(2000), 『이두연구』, 태학사.
남풍현(2002), 「신라시대 구결의 재구를 위하여」, 『구결연구』 8, 구결학회, 77-107쪽.
남풍현(2003), 「고대국어의 시대 구분」,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1-22쪽.
박성종(1997), 「차자 표기의 어휘론」,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61-77쪽.
박영섭(1995), 『국어 한자 어휘론』, 박이정.
박용식(2002ㄱ), 「『대명률직해』에서의 이두의 생략에 관한 연구」, 『경상어문』 8, 경상어문학회, 27-45쪽.

박용식(2002ㄴ), 「『대명률직해』에 나타난 '爲有'에 대하여」, 『배달말』 31, 배달말학회, 197-211쪽.
박용식(2003ㄱ), 「이두의 생략 표기에 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용식(2003ㄴ), 「초기 이두 자료의 문법 형태」, 『경상어문』 9, 경상어문학회, 49-69쪽.
박용식(2004), 「향찰의 생략 표기에 대하여」, 『제29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35-42쪽.
박진호(1997), 「차자 표기 자료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117-145쪽.
배대온(2002), 『이두문법소의 통시적연구』, 경상대학교출판부.
배대온(2003), 『역대 이두사전』, 형설출판사.
백두현(1997), 「고려 시대 구결의 문자체계와 통시적 변천」, 『아시아 제민족의 문자』, 태학사, 287-384쪽.
백두현(1997), 「차자 표기와 형태론」,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99-116쪽.
서정목(1997), 「경어법 선어말 어미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537-581쪽.
서종학(1995), 『이두의 역사적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송 민(1998), 「국어사의 시대 구분 -음운사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태학사, 347-360쪽.
송기중(1997), 「차자표기의 문자론적 성격」,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5-29쪽.
심재기(1982), 『국어 어휘론』, 집문당.
심재기·이승재(1998), 「『화엄경』 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구결학회, 29-111쪽.
양주동(1965/1990), 『증정고가연구』, 일조각.
유창균(1994), 『향가비해』, 형설출판사.
이 용(2000), 「연결 어미의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문학박사논문.
이건식(1997), 「석독구결의 생략표기와 난해토의 해독」, 『국어사연구』, 태학사, 1056-1090쪽.
이기문(1968/1972), 『국어학개설(개정판)』, 탑출판사.
이승재(1992), 『고려시대의 이두』, 태학사.
이승재(1997), 「차자표기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211-246쪽.

장윤희(2004),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47-80쪽.
정 광(2003), 「한반도에서 한자의 수용과 차자표기의 변천」,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53-86쪽.
정재영(1996), 『의존명사 'ᄃᆞ'의 문법화』, 태학사.
정재영(1997), 「차자표기 연구의 흐름과 방향」,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31-59쪽.
정재영(1998), 「합부금광명경(권3)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구결학회, 113-193쪽.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문학박사논문.
홍고 테루오(2002), 「이두자료 경어법에 관한 통시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小林芳規(2002), 「한국의 각필점과 일본의 고훈점의 관계」, 『구결연구』 8, 구결학회, 21-76쪽.
小林芳規(2003), 「신라경전에 기입된 각필문자와 부호」,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5-30쪽.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mail: san@gshp.gsnu.ac.kr
접수일자: 2004. 10. 28.
게재결정: 2005. 1. 29.

A Study on the Features of Linguistic Age of Hyangchal(鄕札), Contained in the Samgukyusa(三國遺事)

Park Yongsik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features of linguistic age of Hyangchal(鄕札), that is contained in the Samgukyusa(三國遺事). It has been a common tendency that the features of linguistic age of Hyangchal show the period of Hyangga(鄕歌)'s writing. We know that it is open to question in accordance with research works of Idu(吏讀) and Kugyol for translation. By Now there were not any definite studies to verify it. We examined the features of linguistic age of Hyangchal, that is contained in the Samgukyusa, by investigation of the degree of grammaticalization of '等' and '尸等隱/尸等焉', the change of sound of '賜' and the distribution of '爲, 白'.

Investigating Idu data, all '(乙)等' shows syntactic construction before 13th countrey, but it become a ending that means [condition] after 13th century. The other hand, '(乙)等' is a ending that means [condition]. And pre-ending '賜' does not show after early year of 11th century, but '敎' that roles same as '賜' appear from the middle year of 11th century. The features of it mean that grammar of Hyangchal, that is contained in the Samgukyusa

is affected by the grammar of 13th century.

By the way '爲' that is suffix appears after 8th century, but it does not appears in the Hyangchal, that is contained in the Samgukyusa. And it is same case of '白' that is pre-ending. Because Hyangchal, that is contained in the Samgukyusa is made before 9th century, the features of it is caused.

*Key words: Hyangchal, Samgukyusa, Idu, Kugyol, Hyangga, ending.